



목어

미국에 대한 단상



미국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반미적 감정을 더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다분히 감정적인 반미에 눈이나 꿈쩍하지 않을 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적이 있다. 몇년 전 한달간 미국을 여행했을 때. 너무도 넓은 땅, 풍요로운 자원... 여행하면서 괜히 심동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그런 자원과 국토에 대해 놀랐던 것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은 워싱턴 시티에서 역사박물관에 들렀을 때였다. 흑인 폭동,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의 과정 등, 그들 역사의 아프고 추한 모습들까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자료들은 미국의 모든 법률과 제도가 하나도 거저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자유로운 삶의 이상을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구국을 벗어났고자 하는 개성 강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부딪치면서 하나 하나 세워온 질서의 자취들... 짧은 역사지만 자신들이 투쟁과 노력을 통해 건설한 것에 대해 가지는 경건한 느낌을 많은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듯 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가장 큰 자력이 아닐까 생각했다.

미국에 비한다면 너무도 긴 역사 속에 전통과 문화를 물려받은 우리. 그러면서 전통의 급격한 단절 속에서 우리 것을 우리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 근현대의 굴절 속에서 해방조차도 우리들의 힘으로 얻지 못하고, 계속 열강의 장기판에 피동적으로 휩쓸린 우리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느끼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조상들의 피뎠음을 느끼기에 너무 단절이 있고, 오늘의 제도와 문화를 내가, 우리가 세웠다고 하기엔 너무도 거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렇기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경건한 열정도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다.

쉽게 얻은 것. 우리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정말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혼란들, 그 가운데 이루는 조그만 성과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일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제한점을 지내며 더 생각이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우리나라의 관습은 집안 어른, 교사, 선배 등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왔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위계 질서가 있고, 그런 위계질서를 잘 파

나 상호간의 인격존중을 요구하는 일종의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권위나 청소년의 권위가 올라간 대신 노인이나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 것 등은 오랜 전통과 새로운 가치사이

는 그런 교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희망사항은 대학 입시라는 절대 지상의 명제 앞에 무력한 명분이 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의 수업도 부족하여 특별과외를 시켜서라도 점수만 올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듯 전체교육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문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4명이 '학교를 그만 두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중학생 25.4%, 고교생 25.7%가 '공부하는 게 무조건 힘들고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시전쟁터가 돼버린 교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학교가 학생들을 교실밖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이다. 교과 성적이외의 일로는 거의 평가받을 수 없는 그에게는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마저도 불투명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예절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나의 교육방식의 요점은 간결하다. "선생님은 옳다"라는 것이다. 때때로 아이들이 학교 교사를 평가할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나의 대답은 간결하다. "선생님은 옳다"라고 한다. 그런 다른 것이 아니다. 교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학교는 이미 학교가 아니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력,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 오늘 우리들의 교실이 너무도 황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사실 그것은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가 아닐까. 입시위주의 교육이 있는 한 학교에 대한 불만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이희재
광주대 교수
철학과

입시위주 교육 '교실붕괴' 초래

악하는 것이 원만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서구사회의 평등과 인권은 어찌나나 교사, 선배 등의 위계질서를 떠

의 충돌 가운데 권위적인 요소가 사라져 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학교는 약간은 혼돈상태에 있다. 교사는 전통적인 권위와 존중을 학생들로부터 기대하는 반면, 학생들은 서구적 인격존중과 평등성에 바탕을 둔 탈권위의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 교육, 타율적인 강제수업이 아닌 그야말로 전인교육을 지향하

치열한 입시전쟁터의 이런 교실붕괴 위기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소수일 것이 자명하다. 부모와 교사의 방침을 순응하고 소위 명문대학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를 하는 부류는 제외하고는 보통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리라 하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얼마전 경기도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고교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

두 아들의 든 학부모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모범생인 큰 아들은 이런 한국적 교실붕괴기에 잘 적응하여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했다. 다른 집처럼 문대학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를 하는 부류는 제외하고는 보통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리라 하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얼마전 경기도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고교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

정부가 6월 15일부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중고교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회장 지거)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디

열린 마당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고 복지시설 신고제 시행에 따른 종교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침과 개선을 요구하는 종교계의 의견을 소개한다.

10인 미만 시설도 관청서 관리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심의관)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를 위해 97년 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1년 조사시 637개소로 파악됐다. 기존 시설부족, 신고시설의 입소기준 엄격, 재정부족, 시설 이용의 자유

들이 미신고 시설을 상존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신고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입소기준 미달과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수용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밖에 있어 대형 안전사고, 인권유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전면적인 양성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6-8월 실태조사와 조건부 신고제도를 통해 신고를 유도하고,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 2005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내에 조건부 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시설장 자격 획득, 시설 개 보수비를 지원하고,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과감히 퇴출 조치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기준 완화, 10인 미만 시설 근거 마련, 시설장 자격기준 완화, 비상 재해시설 기준 통일 등의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10인 미만 시설을 제도권으로 흡수, 관리할 계획이다.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공공요금 일부, 개 보수비, 복지 전문인력 지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아동시설 등 수요에 비해 수용능력이 부족한 시설과 주간기보 호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운영주체 입장 고려돼야

지거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대부분의 미신고 소규모 복지시설들은 종교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보완하고 새로운 복지활동의 씨앗 역할을 해 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미신고시설 지원 관리 방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대책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관리 중심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시설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신고를 꺼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은 현재 약 40여 곳으로 파악된다. 규모면에서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250여명에 이를 만큼 다양하다. 이들 불교계 미신고시설들이 정부의 미신고시설 신고제에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불교계 미신고 시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일부는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할 경우 그린벨트내 시설과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은 철거해야 한다. 게다가 정기적인 보고, 감사 등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 추가 인력이 필요해진다. 종단에서는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현황 파악과 신고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단이 관련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양성화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주체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또한 영세한 시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제시, 민간의 참여와 의견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등 개선 위한 지원 필수

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적으로 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대상자를 수용 보호함으로써 신고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복지유구를 보완,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제도권 내의 신고시설을 보완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것은 점차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별적 복지의 문제를 민간부분이 스스로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복지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적, 운영적, 수요자적 측면에서 공식적 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공식적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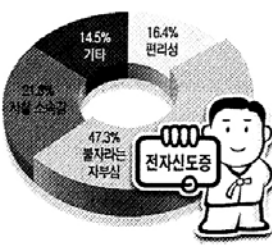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복지시설은 시설규모의 영세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오는 재정적 한계와 이로 인한 시설 설비의 미비와 프로그램 수행 한계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시설운영으로 인한 시설 안전성과 시설의 미비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로의 전환 방안 마련, 인건비 및 생계비 지원, 시설의 증개축,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일반시설의 입소기준 현실화 및 신규 시설 설치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당제도의 강화 등을 통한 미신고 시설 수요의 차관 노력 등이 필요하다.

불자의 생각

전자신도증

카드 한 장 만으로도 경제생활이 가능한 시대. 이제 카드는 경제적 수단의 개념마저 뛰어 넘고 있다. 때문에 신용 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



"갖기 원한다" 응답 68.6%

에 시행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신도증의 기능이 결합된 '전자신도증'에 대한 매력도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72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불교뉴스' 설문에서 49명(68.6%)이 전자신도증을 갖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전자신도증의 가장 큰 매력은 편리성(16.4%) 보다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47.3%). 사찰에 대한 소속감 고취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21.8%였다. 임연태 기자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

제2회 명예 (박사) 학위 취득 연수

세계불교 중심지이며 불교의 극락이라 불리는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에서 제1회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 교육과목 - 백침술(100%확실하게 살빼는 속효 법) 정통사주학, 관상학, 독성법, 비방단침술, 특수기공도통법
- ❖ 지원자격 - 학력, 나이 관계없음(선착순 25명)
- ❖ 제출서류 - 등본2장, 사진5장, 여권, 비자, 지원서1통
- ❖ 접수기간 - 양력 7월 15일 ~ 8월 26일까지. (일정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 ❖ 교육기간 - 양력 9월 1일 ~ 6일 까지(5박6일)



전화 031)867-4131, 011-214-4135, 018-370-4133
MYANMAR, YANGON
yangon office : 5b 3b floor kamayut, townshlp 2ayarthlrl rd,

아우미따지 불교성도대학 한국분원 사무국

서경다도연구회

"비구니스님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취지

서경다도연구회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수행정진하는 비구니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졌습니다.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는 비구니스님들을 모셔서 한달에 한번 tea회와 tea연구로 인한 교류를 통하여 부처님의 정법으로 수행정진하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무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알리는 다도시연

< 다담선 : 茗禪茶會 > < 중국다도 : 김영숙 >

- ☞ 일 시 : 7월 26일 (금) 오후 4시
- ☞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정승마을
- ☞ 문 의 : ☎ 031)984-8541
- ☞ 발기인 : 동조(보륜사) 정인(죽림사) 증묵(화성사) 승헌(혜진선원) 성은(웅법사) 정민(석불사) 목산(정불암) 예성(백련사) 예조(정릉암)